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 청소년의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연구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개발을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성격심리 전공  
이 내 아



# 청소년의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연구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개발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민    경    환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성격심리 전공

이    내    아

이내아의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최    인    철



부위원장    오    성    주



위    원    민    경    환







## 국문초록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통해 느끼는 쾌감을 뜻하는데, 시기(envy)와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상향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타인관련 유발정서 중 하나로 최근 학문적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정서 경험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 461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연구 1),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는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제작하였다(연구 2-1). 이어서 제작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연구 2-2), 본 연구에 활용하여 개인차에 따른 특성 파악은 물론 시사점을 논의하고, 아울러 척도의 유용함을 증명하였다(연구 2-3).

연구 1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다양한 각도(대상, 영역, 원인 및 정서의 강도)에서 청소년의 부러움 경험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부러움을 느낀 대상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상황을 상상하게 하여 샤덴프로이데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샤덴프로이데에 대한 간단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 후, 청소년의 샤덴프로이데 개념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선망 또는 시기와 같은 부러움을 경험한 반면, 샤덴프로이데 면에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 샤덴프로이데가 개인차를 지닌 고유의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대상과 관련하여 친구에게, 영역과 관련하여 성적에서, 원인과 관련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강한 강도의 샤덴프로이데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샤덴프로이데의 개념을 정서-인지-행동으로 범주화하였을 때, 정서보다 인지를 주로 한 고등학생의 샤덴프로이데가 정서를 주로 한 중학생의 샤덴프로이데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샤덴프로이데와 정서의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연구 2-1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문항생성원으로 활용하여 총 10문항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척도는 단일 요인을 측정하는 신뢰도 있는 척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2-2에서는 제작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는 각각의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의 시기(1차) 및 샤덴프로이데(2차) 측정값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샤덴프로이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시기를 측정하는 기질적 시기심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와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수용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려 하는 경향성을 살펴보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여 제작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2-3에서는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자기에, 대처방식, 공감, 삶의 질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은 자기에 및 정서를 활용하는 소극적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공감 능력 면에서는 정서적 공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드러내 자기에 성향이 강하며 정서를 주로 할수록 더 많은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하고,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이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샤덴프로이데는 자존감 및 주관적 삶의 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여 적응적이지 못한 특성임을 나타내었으며 척도의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탐험적 연구로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 새롭게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를 제작해 활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 적용한 샤덴프로이데 후속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샤덴프로이데, 시기, 자기에, 상향비교,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학 번:** 2008-20157

# 목 차

I. 서 론 .....	1
이론적 배경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
II. 연구 1 .....	10
1. 방법 .....	10
2. 결과 및 논의 .....	12
III. 연구 2 .....	23
연구 2-1 .....	24
1. 방법 .....	24
2. 결과 및 논의 .....	25
연구 2-2 .....	28
1. 방법 .....	28
2. 결과 및 논의 .....	31
연구 2-3 .....	36
1. 방법 .....	36
2. 결과 및 논의 .....	38
IV. 종합 논의 .....	46
참고문헌 .....	51
부록 .....	58
Abstract .....	81

# 표 목 차

[표 1-1] 타인관련 유발정서 -----	2
[표 1-2] 시기로 인한 샤넨프로이데와 부정적 정서로 인한 샤넨프로이데 -	7
[표 2-1] 연구 1의 참가자 분포 -----	11
[표 2-2] 범주화해 정리한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넨프로이데 경험 -----	14
[표 2-3] 범주화해 정리한 청소년 샤넨프로이데의 근거 및 개념 정의 ---	15
[표 2-4] 영역별 부러움 정도의 차이 (명) -----	18
[표 2-5] 원인별 부러움 정도의 차이 (명) -----	19
[표 2-6] 원인별 샤넨프로이데 정도의 차이 (명) -----	19
[표 3-1]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예비 척도의 문항-전체 상관과 신뢰도 및 요인 분석 결과 -----	26
[표 3-2] 연구 2-2의 참가자 분포 -----	28
[표 3-3]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전체 시나리오 각 평균 측정값 간의 상관 -----	31
[표 3-4] 시나리오별 시기-샤넨프로이데 측정값의 평균 비교 -----	32
[표 3-5]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전체 시나리오 각 평균 측정값 및 기질적 시기심 척도 간의 상관 -----	33
[표 3-6]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기질적 시기심 척도 각 문항별 상관 -----	34
[표 3-7]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샤넨프로이데 및 시기심 척도, 전체 시나리오 각 평균 측정값 간의 상관 -----	35
[표 3-8] 연구 2-3의 참가자 분포 -----	36
[표 3-9]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간의 상관 -----	39
[표 3-10]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샤넨프로이데와 대처방식 비교 -----	40
[표 3-11]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대처방식 척도 간의 상관 -----	41
[표 3-12]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공감능력 검사 척도 간의 상관 --	43
[표 3-13]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와 공감능력 검사 척도 간의 상관 ----	44
[표 3-14]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자존감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 간의 상관 -----	45

## 그 립 목 차

[그림 2-1] 대상별 청소년의 부러움 경험 (명) -----	16
[그림 2-2] 대상별 부러움 강도 (%) -----	16
[그림 2-3] 대상별 샤덴프로이데 강도 (%) -----	16
[그림 2-4] 영역별 청소년의 부러움 경험 (명) -----	17
[그림 2-5] 원인별 청소년의 부러움 경험 (명) -----	18
[그림 2-6] 부러움 경험의 영역별 성차 (%) -----	20
[그림 2-7] 강한 부러움 경험 (%) -----	21
[그림 2-8] 강한 샤덴프로이데 경험 (%) -----	21
[그림 2-9] 부러움 경험의 영역별 연령차 (%) -----	21
[그림 2-10] 강한 부러움 경험 (%) -----	22
[그림 2-11] 강한 샤덴프로이데 경험 (%) -----	22
[그림 2-12] 연령별 샤덴프로이데 개념차 (%) -----	22
[그림 3-1]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스크리 도표 -----	27



# I. 서론

“행복이란 남의 불행을 음미할 때 솟아나는 쾌감이다.”

-앰브로스 비어스(Ambrose Bierce, 『악마의 사전』, 1911)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는 삶의 매 순간마다 실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에 압도당하기도 하는 우리의 단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이러한 감정이란 것은 때때로 여러 학자들(Plutchick, 1980; Ekman, 1993)에 의해 기본정서로 구분되어지기도 하듯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 어떠한 상황 하에 쉽사리 예측 가능한 자명한 것이기도 하며, 때로는, 아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복잡적이며 복잡하고 미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잘 나가던 알미운 유명 인사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된다면, 먼저 승진한 직장 동기가 업무상 큰 실수를 저질러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경우, 우리는 으레 연민 또는 동정과 같은 따뜻한 감정을 떠올리며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 어느 깊은 곳에서 스물 스물 솟아오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쾌감, 이 비밀스러운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에 대한 해답은 독일어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에서 찾을 수 있다. 샤덴프로이데란 손실, 고통을 의미하는 “샤덴(schaden)”과 기쁨, 환희를 뜻하는 “프로이데(freude)”의 합성어로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통해 느끼는 쾌감을 뜻하며 한국어의 ‘잼통,’ 영어의 ‘gloat(고소해하다)’와 유사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Heider(1958)가 타인의 불행에 대한 부조화적 감정적 반응(a discordant emotional reaction to the lot



of another person)이라고 최초로 정의하였으며 비교와 관련된 정서 중 하나로 최근 새로이 주목받으며 유럽, 호주, 북미 등지에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이론적 배경

먼저 다른 유사 정서와 구분하기 위해 Coppens(2008)의 타인관련 유발정서(other concern eliciting emotions)를 살펴보면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유쾌한 정서로서 타인의 행복에 대한 불쾌한 정서인 시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정서 모두 양가성(bivalence)을 지니고 있는 복합정서로 사회적으로 드러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바, 타인의 행복에 대한 유쾌한 정서인 공감적 행복, 타인의 불행에 대한 불쾌한 정서인 연민과는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타인관련 유발정서 (Coppens, 2008)

	타인의 행복	타인의 불행
유쾌	공감적 행복 (empathic happiness)	샤덴프로이데 (schadenfreude)
불쾌	시기 (envy)	연민 (sympathy)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를 살펴보면 샤덴프로이데 그 자체의 경험적(experiential) 측면보다는 샤덴프로이데의 선행요인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향비교 및 시기와 관련된 연구(Brigham et al., 1997; Feather et al., 1994; Van Dijk et al., 2006/2011), 당위성

(deservingness)과 관련된 연구(Ben-Ze'ev et al., 1992; Smith et al., 1996; Van Dijk et al., 2005), 증오와 같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연구(Hareli & Weiner, 2002) 등을 들 수 있다.

## 1. 상향비교 및 시기 관련 연구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샤텐프로이데란 결과적으로 행복한 상태, 즉, 긍정적 정서라 할 수 있다. Michalos(1985)의 비교이론(discrepancy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어떠한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과 긍정적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Tesser(1988)의 자기평가모형(Self Evaluation Model)에서 다른 누군가의 불행이 이전에 지니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하여 불행을 당한 대상을 적합한 비교기준으로 삼게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가장 일반적인 대상은 타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타인과 비교를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라 칭하며, 이를 자신과 비슷한 대상과 비교하는 수평비교(lateral comparison), 자기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대상과 비교하는 상향비교(upward comparison), 자기보다 더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대상과 비교하는 하향비교(downward comparis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Festinger, 1954). 그 중에서도 상향비교는 때때로 자기 향상(self-improvement)의 동기가 되기도 하며(Buunk et al., 1990) 희망과 영감을 제공하는 롤 모델의 역할을 하는 등(Collins, 1996) 미래의 수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Blanton et al., 1999)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향비교로 인한 부작용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속적인 상향비교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적정서를 야기 시키고(Buunk & Gibbons, 2007) 비교 대상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하게 하며(Testa & Major, 1990) 무엇보다도 상대를 향한 시기를 경험하게 한다(Reis et al., 1993)(Zhang, 2009, 재인용).

시기( envy)<sup>1)</sup>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소유한 제3자 또는 집단과 비교할 때 발생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복합정서(Smith & Kim, 2007)로서 열등감, 적대심, 분노, 악의 등의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타인의 행운이나 성취에 대한 의식적인 인지적 평가인 인지적 측면(김미정, 2013) 또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기를 느끼는 대상이 자신과 유사하거나 가까울수록, 시기를 경험하는 영역이 개인의 자기 개념에 중요한 요소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Cohen-Charash & Mueller, 2007; Tesser & Collins, 1988). 한 발 더 나아가 Smith와 Kim(2007)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의 유무에 따라 적개심을 포함하는 부정적 시기(malicious envy)와 적개심을 포함하지 않는 긍정적 시기(benign envy)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서 긍정적 시기란 한국어의 선망(羨望) 또는 부러움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향비교 하에서의 시기와 샤덴프로이데가 같은 맥락에 존재하리라 여긴 많은 학자들은 소위 "톨 파피(tall poppy)"라 일컬어지는 부와 명성, 또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불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아이러니한 반응<sup>2)</sup>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Feather와 동료들(1989/1994)은 상향비교로 인해 시기하던 경쟁자의 불행이 샤덴프로이데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1,531명의 고등학생에게 각각의 우등생과 평범한 학생이 실패를 경험하는 시나리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피험자들은 평범한 학생보다는 우등생이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으로 자가 보고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은 평범한 중위권 학생의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졌을 때보다는 우등생의 성적이 중위권으로 떨어졌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 시기( envy)와 질투( jealousy)는 유사한 의미 같기도 하며, 일상생활에서 종종 혼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보통 사회적 비교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을 시기심, 이성 관계에서처럼 사회적 관계상황 하에 발생하는 감정을 질투로 구분하고 있다.

2) 호주 및 영미 문화권에는 "톨 파피 신드롬(TPS: Tall Poppy Syndrome)"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는 뛰어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사회적 현상을 뜻한다.

Van Dijk와 동료들(2006) 역시 샤덴프로이데에 대한 선행 요인으로써 시기에 주목하였는데, 이들은 시기와 마찬가지로 샤덴프로이데 또한 비교 대상이 자신과 비슷할수록 (ex. 동성인 경우) 비교 영역이 자신과 관련된 것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 밖에 Smith와 동료들(1996), Brigham과 동료들(1997) 또한 자신과 비슷할수록 적절한 사회적 비교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기심이 샤덴프로이데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하였으며, Feather와 Sherman(2002) 역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닌 경우, 시기만으로 샤덴프로이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과로 이전 연구(1994)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또 다른 연구에서 Van Dijk(2011)는 샤덴프로이데의 기능적 측면을 알아보았다. 상향비교로 인한 시기의 대상자로부터 야기된 자아에 대한 위협감이 낮은 자존감과 샤덴프로이데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데, 이 때 타인의 인정과 같은 자기지지(self-affirmation)의 기회를 얻은 피험자의 샤덴프로이데는 자기지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피험자의 샤덴프로이데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불행이 자기관(self-view)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당위성 및 부정적 정서 관련 연구

시기 이외에도 샤덴프로이데를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당위성(Ben-Ze'ev, 1992/2000; Feather & Sherman, 2002; Smith et al., 1996; Van Dijk et al., 2005/2009)과 증오와 같은 부정적 정서(Hareli & Weiner, 2002)를 들 수 있다.

Van Dijk와 동료들(2005)은 타인에게 닥친 불행이 그렇게 될 만한 당위적(deserved)인 것일 때, 그에 대한 유쾌한 정서인 샤덴프로이데가 발현한다 하였다. 이들은 196명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랜덤으로 각기 다른 인터뷰를 감상하게 하였는데, 각각의 인터뷰는 우월한 대상 또는 평범한 대상이 불행을 겪는 내용으로 불행을 일으키는 사건은 그 자신에게 책임

이 있는 것(당위적, ex. 연구실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훔친 것)과 책임이 있지 않은 것(부당위적, ex. 연구실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훔쳤다는 모함을 받은 것)으로 나뉘었다. 그 결과, 불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책임 정도가 샤텐프로이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불행에 대하여 지각된 당위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불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대상의 책임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수록 불행이 당위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그것이 피험자로 하여금 더 큰 샤텐프로이테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시기를 느끼는 대상에게 부당한 불행이 닥쳤을 때보다 정당한 불행이 닥쳤을 때, 더 큰 샤텐프로이테를 경험한다는 Smith와 동료들(1996)의 연구 및 타인의 부당한 이득에 따른 분노(resentment)로 인해 그 대상에게 닥친 불행을 정당한 것이라 여겨 샤텐프로이테가 유발된다는 Feather와 Sherman의 연구(2002)를 한층 더 깊이 탐색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Van Dijk(2009)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정당한 이득을 취한 우월한 대상의 불행에 한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대상의 불행에서보다 더 적은 샤텐프로이테를 경험하며 더 많은 연민을 느낀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불행을 당한 대상이 시기하던 대상인 경우, 불행의 당위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샤텐프로이테를 경험한다는 Brigham과 동료들(1997)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reli와 Weiner(2002)는 지금까지 주된 요인으로 주목받아 온 시기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정서(other-directed negative emotions)와 샤텐프로이테의 관련성에 새로이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시기에 의한 것과는 독립적으로 증오나 혐오와 같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불쾌한 감정 또한 샤텐프로이테를 야기 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시기 유(有)-증오 무(無) 상황, 시기 무(無)-증오 유(有) 상황, 시기 무(無)-증오 무(無) 상황)를 활용한 연구 결과, 시기로 인한 샤텐프로이테인 경우, 샤텐프로이테를 경험하게 하는 불행의 정도가 가벼우며, 상대방에게 불행이 닥치길 원하는 정도

가 낮으며, 실제로 불행이 닥쳤을 때, 도움을 주려하지만; 부정적 정서로 인한 샤덴프로이데인 경우, 샤덴프로이데를 경험케 하는 불행의 정도가 크며, 상대방에게 불행이 닥치길 원하는 정도가 높으며, 상대방에게 닥친 불행을 정당하다고 여기며, 실제로 불행이 닥쳤을 때, 도움을 주려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는 시기하는 타인에게 닥친 불행이 정당하다고 여겨질수록, 불행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더 큰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Ben-Ze'ev et al., 1992)와 대비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을 시기하는 경우에도 적의(hostility)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공유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대상에 대한 증오 및 혐오만으로 인한 샤덴프로이데와는 그 양상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2는 위의 내용을 정리해 나타낸 것이다.

표 1-2. 시기로 인한 샤덴프로이데와 부정적 정서로 인한 샤덴프로이데

	시기	부정적 정서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없거나 낮음	높음
불행의 정도	가볍거나 보통	심함
불행을 원하는 정도	낮음	높음
불행의 당위성	무관	높다고 여김
도와줄 의사	높음	낮음

그러나 이상의 모든 요인들은 각각이 기능하는 독립적 요소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요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샤덴프로이데란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정서이며, Frijda(1988)의 “정서의 법칙”에서 드러나듯이 숨겨진 수많은 동기와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기타 연구

그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 이 흥미로운 정서를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Shamay-Tsoory와 동료들(2007/2009)은 전전두엽의 배엽 정중(VM) 손상 환자들이 마음이론 과제 수행 중 사회적 정서인 시기와 샤덴프로이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옥시토신을 주입한 피험자들이 주입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게임을 하며 더 많은 시기와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Takahashi와 동료들(2009)은 fMRI를 통해 강한 샤덴프로이데를 경험시 뇌의 선조체(striatum)가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며 보상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발달학적 측면에서는 Steinbeis와 Singer(2013)가 7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상-처벌 과제를 수행한 결과, 아동들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의 패배에 대한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하고 이러한 샤덴프로이데의 정도가 나이와는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그 외 미디어(Van Dijk et al., 2012), 마케팅(Sundie et al., 2009), 스포츠(Leach et al., 2003; McNamee, 2003) 및 게임(Greitemeyer et al., 2010), 의료 서비스(McNamee, 200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샤덴프로이데에 주목해 응용하고 있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많은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에서의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연구는 유감스럽게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collectivistic culture)인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individualistic culture)인 서양 사회에 비해 상호의존적이며 유난히 타인과 비교에 민감하여 예로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적으로도 빈번하게 시기와 같은 사회적 정서가 강도 높게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은 신체적 및 인지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며 불안정한 시기적 특성상 타인의 시선을 유달리 의식하고 또래와 비교하게 되는 사회비교 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이 매우 높아져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Gibbons & Bunnk, 1999).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중매체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발달은 왜곡된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에 의해 자신을 판단하게 해 우울, 열등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으며(Gulas & Mckeage, 2000; Muise et al., 2009)(채려분, 2012, 재인용) 이는 상대적으로 비교 경향성이 높고, 쉽사리 대중매체와 SNS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정서이자 타인관련 유발정서인 샤덴프로이데란 어떠한 양상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또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무엇일까?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그 해답을 얻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첫째, 청소년이 경험하는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탐색적 연구(explanatory research)를 실시하는 것이다(연구 1).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샤덴프로이데에 다차원적(대상, 영역, 원인 등)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문항생성원(item generator)으로 활용해 개인의 기질적 샤덴프로이데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개발하고자 한다(연구 2-1).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샤덴프로이데 연구는 겉으로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implicit) 고유의 특성 상 시나리오 또는 비디오 감상 등을 통해 실제 샤덴프로이데를 직간접적으로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척도 연구로 진행할 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다수에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경제성의 효과와 함께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타 관련 변인과의 상관을 통해 제작된 척도의 타당도를 밝히며 개인차에 따른 함의를 시사 하고자한다(연구 2-2, 2-3).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타당하고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고, 샤덴프로이데가 지속적이며 일관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 1: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샤덴프로이데를 주제로 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이기에 아직까지는 토대로 할 만한 국내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차원적 탐색을 통해 분석 가능한 최대한의 기술적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한 예비연구로서 연구 1에서는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부러움과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후 이를 연구자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해 분류 및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 함께 드러난 부러움 경험은 여러 기존의 연구(Brigham et al., 1997; Feather et al., 1994; VanDijk et al., 2006/2011)에서 나타나듯이 샤덴프로이데의 선행요인으로서 피험자들의 실제 정서를 보다 더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 경험에 한층 더 폭넓고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략으로서 연구 범위에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 1. 방법

#### 참가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13세부터 19세까지의 중고등학교 학생 463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한 461명(평균 연령 14.98세, 표준편차 1.53)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의 남녀 및 학교별 분포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설문 전 해당학교의 교장, 교감 및 각 반 담임선생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질문지

배부 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경우 참여치 않아도 된다고 알렸으나 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사탕을 하나씩 제공하였다.

표 2-1. 연구 1의 참가자 분포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남학생	112	45	157
여학생	232	72	304
합 계	344	117	461

## 도구 및 절차

다양한 각도에서 청소년들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접근해보기 위해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부록 I’ 참조)를 제작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을 물은 후, 총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선택형으로 타인에게 부러움이나 시샘(시기심)을 느껴본 경험의 여부를 “예/아니요” 중 고르도록 하였다. 이는 샤덴프로이데의 선행요인으로서 부러움 경험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정서적 기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피험자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떠올려보며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본 연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문항은 본격적인 부러움 경험에 관한 조사문항으로 부러움 또는 시기를 느껴본 대상, 영역, 원인, 및 해당 경험의 강도를 구조화된 틀에 맞추어 솔직하고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풀어서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질문에 <보기>를 제시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문항에서는 피험자가 이전 문항에서 기술한 부러움을 느꼈던 대상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피험자의 기분이 어떠한지 솔직하게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피험자의 샤덴프로

이데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때, 이전 문항에서 2가지 이상의 경험을 기술한 경우에는 정서의 강도가 가장 큰 경험을 선택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샤네프로이데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미리 제시하지 않아 피험자들의 순수한 정서 반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항에서는 샤네프로이데에 대한 간단한 조작적 정의(“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기며 즐거워하는 감정”)를 제시 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샤네프로이데의 근거 및 개념 등에 관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서 작성된 답안은 이후 범주화되어 이어지는 연구 2-1에서 제작 예정인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TS)의 문항생성원(item generator)으로 사용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25분 정도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모두 회수해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시킨 후, 피험자가 작성한 각각의 자유로운 주관식 답안을 연구자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해 코딩(coding)하였다. 또한 각 문항별 모든 범주 기준 및 코딩(coding)의 근거는 청소년 전문가 집단(중고교 교사 3명)과 심리학 전문가 집단(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5명)의 재검토 과정을 거쳤음을 밝힌다.

## 2. 결과 및 논의

###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네프로이데 경험 범주화

청소년이 부러움 및 시기를 느끼는 대상은 (1) 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포함한 가족 및 혈연관계, (2) 친구 및 또래, (3) 청소년의 주변인들 중 그들 또래가 아닌 제3자, (4) 연예인, 빌 게이츠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지닌 유명인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부러움 및 시기를 경험하는 영역은 (1) 성적, (2) 이미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화장품, 옷 등의 단순한 물질, (3) 외모, (4) 해외여행 및 유학처럼 청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력을 필요로 하는 경험이나 사건 등을 포함하는 경제력, (5) 상대의 성격적 강점이나 스포츠, 게임, 미술 실력 등 개인의 특정 능력, (6) 자유 및 시간적 여유, (7) 이성 친구, 또래로부터

의 인기와 같은 대인관계상의 이점으로 구분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6) 자유 및 시간적 여유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한국 청소년만의 고유한 현상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실제 응답 내용은 “초등학교 2학년인 동생은 매일 노는데 나는 10시까지 학원에 있어야한다” 및 “대학생인 언니는 주말에 친구들과끼리 여행가도 부모님께 혼나지 않는다” 등과 같다.

부러움 및 시기를 경험하는 원인은 총 여섯 가지로 나타났는데,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인 “나보다” 또는 “더~” 등이 쓰여진 경우에 (1) 상향비교로, 단순한 비교를 넘어 “내가 못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와 같은 자기비하적인 내용인 경우에 (2) 열등감으로, “재수없다”와 같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연히 드러난 경우에 (3)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경험을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에 (4) 불공평으로, 상대의 자랑으로 인한 경우에 (5) 자랑으로, 자기비하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가볍게 부러워하는 경우에 (6) 선망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대한 부러움 및 시기의 강도는 감정의 큰 변화 없이 “부럽다” 또는 “좋겠다” 등과 같이 단순히 부러워하는 (1) 약한 정도와, “죽고싶었다,” “슬펐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부러웠다” 등과 같이 주요정서가 확실히 드러나거나 부러움의 강도가 큰 (3) 강한 정도, 두 가지 경우의 중간 정도인 (2) 보통, 총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샤넨프로이데의 여부는 (1)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와 (2) 나타나긴 하였지만 “좋았지만 불쌍하다”와 같은 복합적인 경우, (3) 명확히 드러난 경우, 총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2-2 참조)

### **청소년이 정의한 샤넨프로이데의 근거 및 개념 범주화**

샤넨프로이데에 대한 간단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 후 청소년이 지닌 샤넨프로이데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개념 등의 주관식 답안을 분석한 결과, 샤넨프로이데의 근거와 관련한 일련의 개념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총 14가지로 범주화해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정리하였으며 추후 분석을 위해 이를 다시 정서-인지-행동의 세 영역으로 재범주화하였다. (표 2-3 참조)

표 2-2. 범주화해 정리한 청소년의 부러움(시기)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

부러움(시기)의 <u>대상</u>	(1) 가족 및 혈연관계 (2) 친구 및 또래 (3) 또래가 아닌 제3자 (4) 유명인
부러움(시기)의 <u>영역</u>	(1) 성적 (2) 물질 (3) 외모 (4) 경제력 (5) 개인의 특정 능력 (6) 자유 및 시간적 여유 (7) 대인관계상 이점
부러움(시기)의 <u>원인</u>	(1) 상향비교 (2) 열등감 (3)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 (4) 불공평 및 부당함 (5) 상대의 자랑 (6) 단순한 부러움 또는 선망
부러움(시기)의 <u>강도</u>	(1) 약함: 단순한 부러움만을 느낀 경우 (2) 보통: (1)과 (3)의 중간 정도 (3) 강함: 주요 정서가 확실히 드러나거나 부러움의 강도가 강할 경우
부러움(시기) 경험에 대한 <u>샤덴프로이데</u> 여부	(1) 없음: 샤덴프로이데를 느끼지 않은 경우 (2) 복합: 감정이 복합적이거나 애매한 경우 (3) 있음: 샤덴프로이데를 명확히 느낀 경우

표 2-3. 범주화해 정리한 청소년 샤덴프로이테의 근거 및 개념 정의

정 서	(1) 열등감 및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는 정서이다.</li> <li>- 자기에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시기심을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는 정서이다.</li> </ul>
	(2) 상대에 대한 부정적 정서 (혐오감, 적대감)	-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이다.
	(3) 부적정서 해소 및 정서적 쾌감	- 부러웠던 대상으로 인해 경험하던 부적정서가 사라져 느끼는 정서이다.
인 지	(4) 본능 또는 성격	-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서이다.
	(5) 상향비교대상의 하향평준화	- 자기보다 우월했던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정서이다.
	(6) 자기에	- 자신이 최고여야만 하는 자기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이다.
	(7) 사회구조적 문제	- 성공한 사람만 인정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정서이다.
	(8) 타자화	- 불행에 처한 대상이 자신이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서이다.
	(9) 당위성	- 불행에 처한 대상이 좋지 않은 행동으로 자신의 불행을 자초한 당연한 현상이기에 느끼게 되는 정서이다.
	(10) 인지적 오류	- 자신의 단점만 인지하고 상대의 장점만을 크게 보는 인지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이다.
	(11) 적응적 기제	- 상대의 불행을 교훈 삼아 자신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정서이다.
행 동	(12) 상대의 자랑	- 상대의 자랑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서이다.
	(13) 경쟁 이득	- 상대의 불행으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이다.
	(14) 보복 수단	- 상대에게 닥친 불행이 간접적 보복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정서이다.

##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의 대상 관련 특징



그림 2-1. 대상별 청소년의 부러움 경험 (명)

위의 범주기준에 따라 피험자 461명 중 부러움 및 시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답한 45명을 제외한 총 416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피험자의 약 56%에 해당하는 270명의 청소년들은 친구에게 가장 많은 부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각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의 강도를 대상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2-2, 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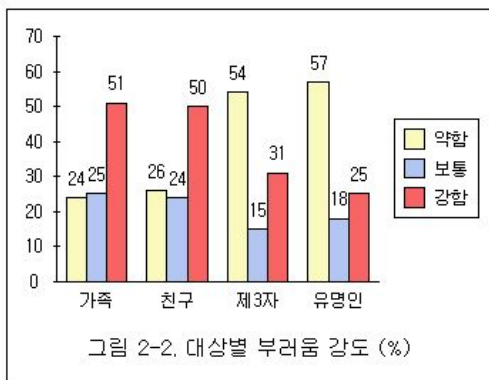


그림 2-2. 대상별 부러움 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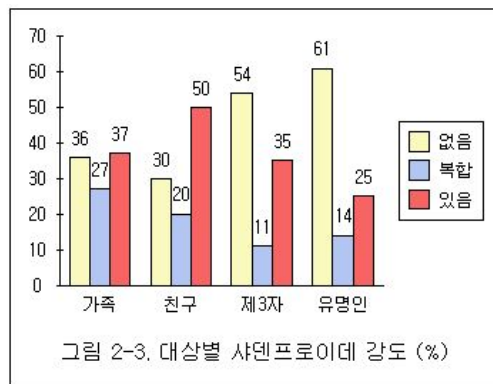


그림 2-3. 대상별 샤덴프로이데 강도 (%)

여기에서 위의 결과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자신과 비슷한 대상일수록 더 많은 시기를 경험한다는 여러 선행연구(Brigham et al., 1997; Smith et al., 1996; Van Dijk et al., 2006)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제3자나 유명인에 비해 가족과 친구를 대상으로 한 강한 부러움의 비율이 모두 비슷한 정도(약 50%)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실제 샤덴프로이데로 발현하는 비율은 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만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51→37%)이다. 이는 자신과 친밀한 대상일수록 샤덴프로이데를 덜 경험한다는 Zhang(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자신과 친밀한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공유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제3자 및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부러움과 샤덴프로이테의 강도가 모두 낮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과의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며, 이상화의 대상 또는 롤모델(role model)로 인식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테 경험의 영역 관련 특징



그림 2-4. 영역별 청소년의 부러움 경험 (명)

빈도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7개의 영역 중 성적(28%)에서 가장 빈번한 부러움 및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테의 강도를 영역별로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영역과 샤덴프로이테의 강도간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아 샤덴프로이테에 특별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샤덴프로이테를 강하게 경험한 피험자의 35.5%가 성적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영역 중 가장 큰 수치에 해당하였음을 밝힌다. 반면, 부러움 경험의 강도는 전 영역에서 골고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chi^2=35.801$ ,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특히 성적(부러움을 강하게 경험한 피험자의 18.3%)과 외모(부러움을 강하게 경험한 피험자의 8.4%), 대인관계(부러움을 강하게 경험한 피험자의 7.7%) 영역에서 강한 정도의 부러움 및 시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인관계의 경우, 해당 영역 내 피험자의 58.4%가 강한 정도의 부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청소년들의 응답 또한 “좋아하는 오빠와 사귀는 그 여자가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났다” 등과 같이 이성 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질투(jalousy)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난히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2-4. 영역별 부러움 정도의 차이 (명)

영역 \ 부러움	약함	보통	강함	합계
성적	22 17.1%	31 24.0%	76 58.9%	129 100%
물질	16 35.6%	15 33.3%	14 31.1%	45 100%
외모	24 31.6%	17 22.3%	35 46.1%	76 100%
경제력	17 43.6%	12 30.8%	10 25.6%	39 100%
능력	17 39.5%	8 18.6%	18 41.9%	43 100%
자유	15 50.0%	4 13.3%	11 36.7%	30 100%
대인관계	11 20.8%	11 20.8%	32 58.4%	54 100%
합계	122	98	196	416

$\chi^2=35.801$ ,  $df=12$ ,  $p<0.01$

###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트 경험의 원인 관련 특징



그림 2-5. 원인별 청소년의 부러움 경험 (명)

빈도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선망 (35%)과 상향비교(27%)로 인해 가장 빈번히 부러움 및 시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트의 강도를 원인별로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그 양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향비교로 인한 부러움의 경우 해당 원인 내 51.8%가 강한 부러움(시기)을 느끼는 반면, 단순한 부러움인 선

표 2-5. 원인별 부러움 정도의 차이 (명)

영역 \ 부러움	약함	보통	강함	합계
상향비교	16 14.5%	37 33.7%	57 51.8%	110 100%
열등감	8 13.8%	11 19.0%	39 67.2%	58 100%
부정적정서	1 4.0%	4 16.0%	20 80.0%	25 100%
부당함	9 29.0%	5 16.1%	17 54.9%	31 100%
자랑	8 16.3%	11 22.5%	30 61.2%	49 100%
선망	80 55.9%	29 20.3%	34 23.8%	143 100%
합계	122	97	197	416

$\chi^2=90.945$ ,  $df=10$ ,  $p<0.01$

표 2-6. 원인별 샤덴프로이데 정도의 차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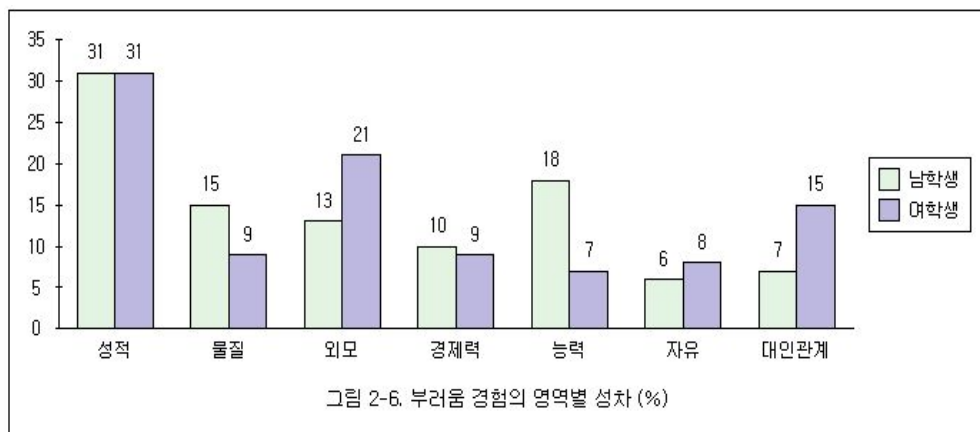
영역 \ 샤덴프로이데	약함	보통	강함	합계
상향비교	28 25.5%	33 30.0%	49 44.5%	110 100%
열등감	14 24.1%	13 22.5%	31 53.4%	58 100%
부정적정서	3 12.5%	4 16.7%	18 70.8%	25 100%
부당함	10 32.3%	8 25.8%	13 41.9%	31 100%
자랑	9 18.4%	7 14.3%	33 67.3%	49 100%
선망	80 55.9%	20 14.0%	43 30.1%	143 100%
합계	144	85	187	416

$\chi^2=52.913$ ,  $df=10$ ,  $p<0.01$

망의 경우 해당 원인 내 23.8%만이 강한 부러움을 경험하고 나머지 55.9%는 경미한 정도의 부러움을, 20.3%가 보통 수준의 부러움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90.945$ ,  $p<0.01$ ). 마찬가지로 샤덴프로이데와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에서도 상향 비교의 경우 해당 원인 내 44.5%가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한 반면, 선망의 경우에는 해당 원인 내 55.9%가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52.913$ ,  $p<0.01$ ). 이는 시기와는 다른 무해한 선망(benign envy)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러움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연합’과 ‘접근’의 동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운아(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매우 선망하는 대상인 제3자 및 유명인에 대한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앞서 본 연구 결과의 원인으로도 지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상대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인한 강한 정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가 각각 80.0%, 7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증오 또는 혐오와 같이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경우 더 큰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한다는 Hareli와 Weiner(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의 성차 및 연령차



카이제곱 검증 결과, 부러움 경험과 관련해 영역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 $\chi^2=24.468$ ,  $p<0.01$ )가 발견되었다. 먼저 영역과 관련해 남학생은 주로 성적, 능력, 물질에 대하여 여학생은 성적, 외모, 대인관계에 대하여 부러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7. 강한 부러움 경험 (%)



그림 2-8. 강한 샤덴프로이트 경험 (%)

다음으로 강한 부러움을 경험한 비율은 여학생(57%)이 남학생(4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샤덴프로이트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역면에서 앞에서 짚어 본 성차 뿐 아니라 유의미한 연령차( $\chi^2=21.517$ ,  $p<0.01$ ) 또한 발견되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 고른 비율의 중학생에 비해, 성적과 외모에 대한 부러움 경험의 비율이 유난히 높으며, 물질이나 경제력, 자유에 대한 비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에 비해 학업적 부담이 큰 고등학생의 현실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9. 부러움 경험의 영역별 연령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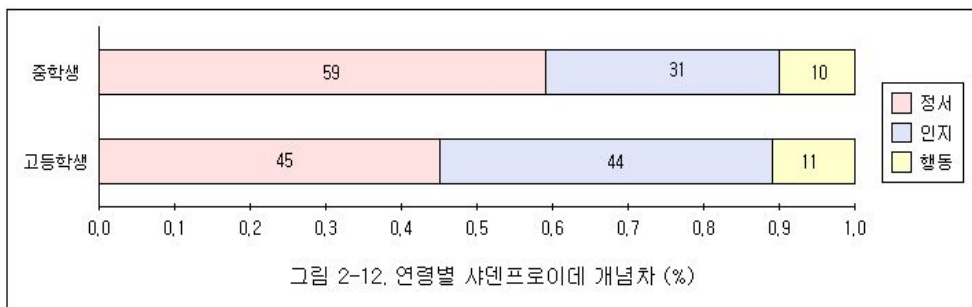


그림 2-10. 강한 부러움 경험 (%)



그림 2-11. 강한 샤넨프로이데 경험 (%)

마지막으로 부러움 및 샤넨프로이데의 정도에서 유의미한 연령차(각각  $\chi^2=12.081$ ,  $p<0.01$ ;  $\chi^2=12.973$ ,  $p<0.01$ )가 발견되었다. 고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중학생이 강한 정도의 부러움 및 샤넨프로이데를 경험하는데, 그 원인을 샤넨프로이데의 근거 및 개념 분석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샤넨프로이데의 개념에 대한 피험자들의 답안을 총 14가지로 범주화해 구분한 후, 통계적 분석을 위해 이를 다시 정서-인지-행동 세 영역으로 재범주화하여 다양한 변인과 교차분석한 결과, 연령과 관련된 다음 그림 2-12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샤넨프로이데에 대한 개념이 정서(59%)를 주로 하여 근거로 한 것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정서(45%)와 인지(44%)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 샤넨프로이데에 더 이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인지의 비중이 더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부러움과 샤넨프로이데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2

연구 2에서는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인 연구 1의 내용을 근거로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기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연구를 통해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하여 보았다.

연구 2-1에서는 개인의 기질적 샤덴프로이데 성향을 측정하는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제작할 것이다. 연구 1에서 도출된 결과를 문항생성원(item generator)으로 활용해 Smith와 동료들(1999)이 제작한 기질적 시기심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의 개발 과정을 참조할 것이다. 이는 샤덴프로이데가 외부의 자극에 의한 단순한 감정적 반응 그 이상의 성격적 특성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하는 정도인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이 저마다 다른 수준으로 지속적이며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측정 가능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예비 연구 성격의 연구 1을 바탕으로 제작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활용해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 목표에 접근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2-2에서는 본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TS)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연구 2-1에서 제작 과정상 함께 살펴본 내용 및 안면 타당도 외 기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을 통해 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알아볼 것이다. 기존에 마련된 관련 척도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기에 샤덴프로이데를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제작해 첫 번째 준거로 활용하였다. 이때 활용한 시나리오는 총 세 가지로 연구 1에서 밝혀진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황들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준거 척도로는 Smith와 동료들(1999)이 개발한 기질적

시기심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를 활용하였으며, 세 번째 준거 척도로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TS)는 시나리오 및 기질적 시기심 척도(DES)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다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문항 내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며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님을 증명할 것으로 예측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 2-3에서는 앞 선 연구 1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하여 샤덴프로이데와 자기애적 성격, 대처방식, 공감 능력, 자존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샤덴프로이데의 개인차를 탐구해보려 한다. 샤덴프로이데는 자기애적 성격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대처방식과 공감능력에서 보다 더 정서적인 방략을, 자존감 및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 연구 2-1: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제작

### 1. 방법

#### 참가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15세부터 17세까지의 중고등학교 학생 295명을(평균 연령 16.42세, 표준편차 1.24)을 대상으로 연구 1을 바탕으로 제작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예비)를 실시하였다. 설문 전 해당학교의 교장, 교감 및 각 반 담임선생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설문지 배부 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경우 참여치 않아도 된다고 알렸으나 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사탕을 하나씩 제공하였다.

## 도구 및 절차

Smith와 동료들(1999)이 제작한 기질적 시기심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의 개발 과정을 참조해 예비 연구인 연구 1에서 분석한 샤덴프로이데의 근거 및 개념별 범주,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문항 생성원(item generator)으로 활용하여 샤덴프로이데와 관련된 18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부록 II’ 참조) 이어 심리학 전문가 집단(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5명)과 함께 제작된 문항들 중 개인의 기질적 샤덴프로이데 성향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9문항을 선택하였으며, Hareli와 Weiner(2002)의 연구를 근거로 선택한 9문항 중 3문항에 대해 샤덴프로이데 경험 대상을 ‘부러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구분해 총 12문항의 예비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예비 척도를 295명의 청소년에게 시행하였는데, 샤덴프로이데가 성차와 무관함을 밝힌 연구 1의 결과 및 동일한 내용을 증명한 Nagel(2010)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구분 및 분석 없이 진행하였다. 그 후 예비 척도에 대한 문항간 상관, 내적합치도 분석 및 요인분석(오블리민)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10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방식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제작하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된 답변을 지양하기 위해 지시문에 “누구나”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한다는 문구를 첨가하였다.

## **2. 결과 및 논의**

연구 1을 통해 전체 피험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러움을 경험한 반면,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한 청소년은 부러움을 경험한 총 416명 중 186명의 청소년으로 약 절반 수준인 45.6%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샤덴프로이데가 개인차를 내포하는 고유한 특성임을 기본 전제로 해 다음의 예비 척도를 시행하였으며, 전체 문항간 상관과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예비 척도의 문항-전체 상관과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예비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 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신뢰도	요인 적재값	새문항 번호
1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이 좋다.	.720	.917	.774	STS1
2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을 느낀다.	.721	.917	.775	STS2
3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698	.918	.758	STS3
4	다른 이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691	.918	.746	STS4
5	다른 이의 실패는 곧 나의 성공이다.	.613	.921	.674	-
6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이 잘 못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팬스레 안도가 된다.	.702	.918	.764	STS5
7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740	.916	.790	STS6
8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을 느낀다.	.730	.916	.789	STS7
9	평소 싫어하던 사람이 잘 못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팬스레 안도가 된다.	.737	.916	.790	STS8
10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소하다고 느낄 것이다.	.637	.921	.700	STS9

11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웃음이 날 것이다.	.683	.918	.735	STS10
12	잘 나가다 망한 사람들에게는 알고 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536	.924	.599	-

위 예비 척도는 성격 특성으로서의 샤덴프로이데, 즉 타인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즐거워하는 정도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12문항 중 12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이 .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또한 .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문항-전체 상관이 가장 낮은 동시에 문항 제거시 신뢰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이 가장 낮은 2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을 선택해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척도는 내적합치도가 .92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 그림 3-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일 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샤덴프로이데란 하나의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내적 일관성을 지닌 유용한 척도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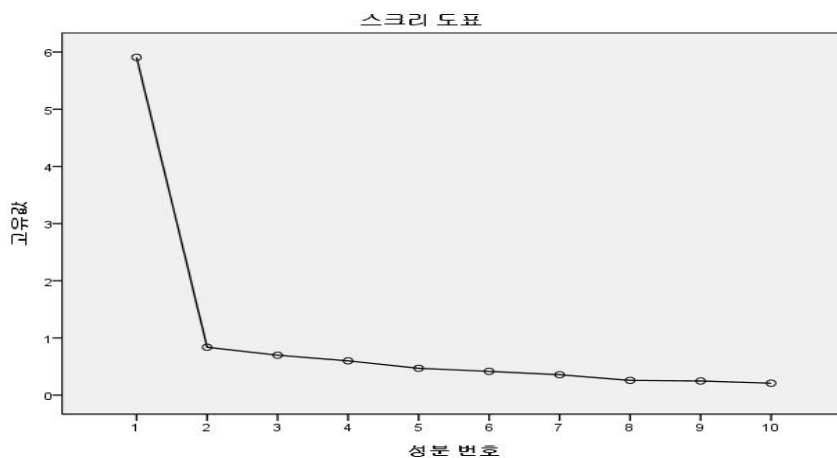


그림 3-1.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스크리 도표

## 연구 2-2: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

### 1. 방법

#### 참가자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13세부터 19세까지의 중고등학교 학생 300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6명을 제외한 294명(평균 연령 15.93세, 표준편차 1.55)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의 남녀 및 학교별 분포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조사 실시 과정은 연구 2-1과 동일하다.

표 3-2. 연구 2-2의 참가자 분포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남학생	63	51	114
여학생	106	74	180
합 계	169	125	294

#### 측정 도구

#####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Schadenfreude Tendency Scale)

한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기질적 특성으로서의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2-1에서 제작한 척도이다. 샤덴프로이데의 정의적 특성을 다방면에서 기술한 10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A (‘부록IV’ 참조)**

샤덴프로이데의 선행 요인으로서 피험자와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유사한 배경의 중립적인 대상(비슷한 성적의 같은 반 친구)에게 부러움을 유발할만한 사건(어려운 시험에서 친구의 성적만 크게 오름)이 벌어지는 상황을 먼저 제시 후 5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피험자의 시기심 정도를 측정한다. 이어서 그 대상에게 불행이 닥치는 상황(가채점을 잘못해 친구의 성적이 사실은 매우 낮은 상황)을 제시해 5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피험자의 샤덴프로이데 정도를 측정한다. 이때 대상의 성별은 피험자와 동성인 것으로 미리 명시해 성별의 차이로 인한 연구 결과의 오염을 최소화하였다.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시기가 .717, 샤덴프로이데가 .835, 전체문항이 .868로 높게 나타났다.

####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B (‘부록V’ 참조)**

샤덴프로이데의 선행 요인으로서 피험자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대상(어릴 때 피험자를 괴롭힌 경험이 있는 불량학생)에게 부러움을 유발할만한 사건(불량학생이 아이돌로 데뷔를 해 스타가 됨)이 벌어지는 상황을 먼저 제시 후 5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피험자의 시기심 정도를 측정한다. 이어서 그 대상에게 불행이 닥치는 상황(연예인이 되어서도 비행을 일삼아 연예계에서 퇴출된 상황)을 제시해 5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피험자의 샤덴프로이데 정도를 측정한다. 이때 대상의 성별은 피험자와 동성인 것으로 미리 명시해 성별의 차이로 인한 연구 결과의 오염을 최소화하였다.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시기가 .719, 샤덴프로이데가 .88, 전체문항이 .865로 높게 나타났다.

####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C (‘부록VI’ 참조)**

샤덴프로이데의 선행 요인으로서 피험자에게 선망을 일으키는 대상(소위 “엄친아/엄친딸”(이)라 불리는 완벽한 학생)에게 부러움을 유발할만한 사건(성공이 보장되는 외국의 유명 명문학교에 입학함)이 벌어지는 상황

을 먼저 제시 후 5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피험자의 시기심 정도를 측정한다. 이어서 그 대상에게 불행이 닥치는 상황(입학이 취소된 후 게임중독이 되어 선망할만한 여러 자질들을 잃게 된 상황)을 제시해 5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피험자의 샤덴프로이데 정도를 측정한다. 이때 대상의 성별은 피험자와 동성인 것으로 미리 명시해 성별의 차이로 인한 연구 결과의 오염을 최소화하였다.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시기가 .708, 샤덴프로이데가 .869, 전체문항이 .873으로 높게 나타났다.

#### **기질적 시기심 척도 (Dispositional Envy Scale)**

Smith와 동료들(1999)이 개발하고 차운아(2010)가 변안한 기질적 시기심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를 청소년의 수준에 맞추어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열등감(inferiority)과 악의(ill will)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8문항에 대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5로 높게 나타났다.

####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

Paulhus(1997)가 개발하고 정보라(2005)가 변안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 BIDR-7)를 사용하였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첫인상은 대체로 맞다’와 같은 자기기만적 고양과 ‘나는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한다’와 같은 인상관리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에 대하여 각 10문항 씩, 총 20문항에 대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628로 나타났다.

## 2. 결과 및 논의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TS)에 대한 첫 번째 준거로 샤네프로이데 시나리오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는 편의상 자신과 유사한 배경의 중립적인 대상이 등장하는 시나리오 A, 부정적인 대상이 등장하는 시나리오 B, 선망의 대상이 등장하는 시나리오 C로 명명하였으며 연구 1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네프로이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학업, 연예, 진학 등의 다양한 상황들로 구성하였다. 모든 시나리오는 샤네프로이데 발현 맥락에 맞추어 피험자가 대상에게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1차 측정(1st appraisal) 과정과 곧이어 대상에게 닥친 불행에 의해 샤네프로이데를 경험하게 되는 2차 측정(2nd appraisal)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다음 표 3-3은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전체 시나리오 내 각각의 시기(1차)-샤네프로이데(2차) 평균 측정값 간의 상관분석 결과로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전체 시나리오 각 과정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매우 높은 상관값은 아니지만 본 척도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샤네프로이데에 대한 개인의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3.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전체 시나리오 각 평균 측정값 간의 상관

	시나리오-시기 평균 측정값	시나리오-샤네프로이데 평균 측정값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604**	.616**

\*\* $p < .01$

시나리오 별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각 시나리오별 시기(1차)-샤네프로이데(2차) 측정값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았다.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각각의 평균값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시나리오별 시기-샤네프로이데 측정값의 평균 비교

	시나리오-시기 평균(표준편차)	시나리오- 샤네프로이데 평균(표준편차)	df	t
시나리오 A	3.38(.74)	3.20(.84)	293	5.066***
시나리오 B	3.28(.79)	3.02(.93)	293	5.582***
시나리오 C	2.92(.74)	2.53(.88)	293	10.175***
전체 시나리오 평균	3.20(.63)	2.92(.75)	293	9.081***

\*\*\* $p < .001$

먼저 각각의 시나리오는 물론 전체 평균치 모두 대상에 대한 시기를 측정하는 시기(1차) 평균값이 샤네프로이데를 측정하는 샤네프로이데(2차) 평균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샤네프로이데보다 시기를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평균치인 2.76(표준편차 .86)과 잠시 후 다루게 될 두 번째 준거 척도인 기질적 시기심 척도의 평균치인 2.81(표준편차 .79) 간의 차이와도 같은 양상을 보여 척도의 타당도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척도를 사용했을 때보다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을 때의 점수치가 약간 더 높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묻는 척도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자신의 모습을 대입시켜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실제 정서를 유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런 이유로 기존의 샤네프로이데 연구가 시나리오 및 비디오 감상을 통한 정서 유발 연구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연구 결과, 척도 대 시나리오의 점수차가 미미한 편으로 연구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해 본 척도로 대안 가능성을 제안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별 평균점수를 비

교환 결과, A(유사대상)>B(부정적 대상에게 닥친 당위적 불행)>C(선망의 대상)의 순으로 나타나 자신과 유사한 대상일수록(VanDijk et al., 2006/2011, Brigham et al., 1997), 대상에게 닥친 불행이 당위적일수록(Van Dijk et al., 2005/2009; Feather & Sherman, 2002; Ben-Ze'ev, 1992/2000; Smith et al., 1996) 더 큰 샤덴프로이테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나리오 C에서처럼 단순한 선망(benign envy)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샤덴프로이테를 유의미하게 덜 경험한다는 연구 1의 결과와 선망의 대상에 대하여 그들의 우월함을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고 호감을 보이는 ‘연합’ 혹은 ‘접근’의 정서를 지니게 된다는 차운아(2009/2010)의 부러움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샤덴프로이테 경향성 척도에 대한 두 번째 준거 척도로 Smith와 동료들(1999)이 개발한 기질적 시기심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샤덴프로이테 경향성 척도와 전체 시나리오 각 평균 측정값 및 기질적 시기심 척도 간의 상관

	샤덴프로이테 경향성 척도	시나리오- 시기 평균 측정값	시나리오- 샤덴프로이테 평균 측정값	기질적 시기심 척도
샤덴프로이테 경향성 척도	1			
시나리오 1차 평균 측정값	.604**	1		
시나리오 2차 평균 측정값	.616**	.724**	1	
기질적 시기심 척도	.544**	.604**	.420**	1

\*\* $p < .01$



시기(envy)란 샤덴프로이데와 많은 연관을 지닌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역에서 자신과 유사한 배경의 대상이 이 점을 얻었을 때 상향비교를 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정서이다(Salovey & Rodin, 1984; Tesser & Collins, 1988). 이러한 시기의 대상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찾아오는 쾌감이 바로 샤덴프로이데로서 두 정서 모두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 정도와 경향성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위의 표 3-5에서 보이는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기질적 시기심 척도 사이의 뚜렷한 정적 상관( $r=.544, p<.01$ )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로써 적절한 값으로 여겨지는 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시기와 관련한 내용을 측정한 시나리오의 1차 평균값과 샤덴프로이데와 관련한 내용을 측정한 2차 평균값 간의 상관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 $r=.724, p<.01$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기를 많이 느낄수록 샤덴프로이데 또한 많이 느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구 설계 과정에서 예상한 샤덴프로이데의 발현 맥락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3-6.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기질적 시기심 척도 각 문항별 간 상관

	DES1	DES2	DES3	DES4	DES5	DES6	DES7	DES8
STS	.445**	.333**	.292**	.373**	.409**	.273**	.378**	<b>.576**</b>

\*\* $p<.01$

기질적 시기심 척도(DES)는 시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열등감(inferiority)과 악의(ill will)의 두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8번 문항(‘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들의 성공은 나를 화나게 한다’)의 내용은 샤덴프로이데와도 관련이 깊어 기질적 시기심 척도의 전체 문항과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6). 그 결과 예상대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관값( $r=.576, p<.01$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에 대한 세 번째 준거척도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IDR-7)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샤덴프로이데 및 시기심 척도, 전체 시나리오 각 평균 측정값 간의 상관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기질적 시기심 척도	시나리오- 시기 평균 측정값	시나리오- 샤덴프로이데 평균 측정값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212**	-.254**	-.238**	-.208**

\*\* $p < .01$

사회적 바람직성이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수용적인 방식으로 응답함으로써 승인 받으려는 피험자의 욕구를 나타내는 것(Crown & Malowe, 1960)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up>3)</sup>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성이 높은 문항에는 참으로, 낮은 문항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 가능하다. 시기와 샤덴프로이데 모두 고유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렵지 않게 여겨지는 부정적인 정서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피험자의 경우 그들의 실제 경향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시기와 샤덴프로이데를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부적상관을 보일 것이라 예상해보았다. 예상한대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r = -.212, p < .01$ ), 기질적 시기심 척도( $r = -.254, p < .01$ ), 시나리오 1차( $r = -.238, p < .01$ ) 및 2차( $r = -.208, p < .01$ ) 평균값 전체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며 가설을 지지하였다.

3)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에서의 응답 왜곡을 교정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거척도로서 연구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확인만을 위해 사용하였다.

## 연구 2-3: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샤덴프로이데

### 1. 방법

#### 참가자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13세부터 19세까지의 중고등학교 학생 407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403명(평균 연령 15.29세, 표준편차 1.49)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의 남녀 및 학교별 분포는 다음의 표 3-8과 같다. 조사 실시 과정은 연구 2-1 및 2-2와 동일하다.

표 3-8. 연구 2-3의 참가자 분포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남학생	86	64	150
여학생	158	95	253
합 계	244	159	403

#### 측정 도구

#####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Schadenfreude Tendency Scale)

한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기질적 특성으로서의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2-1에서 제작되어 연구 2-2에서 사용된 척도이다. 샤덴프로이데의 정의적 특성을 다방면에서 기술한 10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연구 2-1의 .919에 이어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황순택(1995)이 DSM-III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에성 성격장애에 대한 것이다. 본래는 임상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자기에성 성격장애자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나, 비임상 장면에서의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본래 4점 리커트(Likert) 척도의 18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7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9로 높게 나타났다.

###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로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요인분석 및 구성한 24문항의 축약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적극적 대처방식은 문제 중심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으로 소극적 대처방식은 정서 완화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으로 한 번 더 구분돼 총 4개의 하위요인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적극적 대처가 .819, 소극적 대처가 .759, 전체 .833으로 높게 나타났다.

### **공감능력 검사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Davis(1980)의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검사와 Byrant(1982)의 공감적 각성검사를 박성희(1997)가 번안해 청소년용으로 수정 및 보완한 공감능력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망취하기, 상상하기의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인지적 공감 10문항과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의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공감 20문항의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인지적 공감이 .685, 정서적 공감이 .791, 전체 .828로 높게 나타났다.

### **자존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의 한국판으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10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다.

### **주관적 안녕감 척도 (Index of Well-Being)**

Campbell과 동료들(1976)이 개발한 보편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지표(Index of General Affect) 9문항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1문항, 총 10문항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안녕감을 평정하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Index of Well-Being; IWB)로 최해연(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대비되는 형용사 쌍(pair)들 중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1점에서 7점 사이의 점수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98로 높게 나타났다.

## **2. 결과 및 논의**

### **샤덴프로이데와 자기에와의 상관**

연구 1에서 청소년이 지닌 샤덴프로이데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개념 등의 주관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 샤덴프로이데의 근거와 관련한 일련의 개념들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그 중 샤덴프로이데와 자기에의 연관성이 내포된 답변이 전체 392개의 답변 중 총 47개로 이는 시기, 상대에 대한 부정적 정서, 부적정서의 해소로 인한 정서적 쾌감 등의 정서 영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약 12%의 설명력을 갖는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들이 제시한 몇 가지 실제 답변으로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존재한

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기 때문에,” “내가 최고여야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 받고 부러움 받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답변들은 모두 자기에성 성격의 특성인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진술로 이를 통해 샤덴프로이데와 자기에적 성격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자기에성 성격을 진단하는 척도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임상 장면에서의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황순택(1995)의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NPDS)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자기에 정도를 측정하여 샤덴프로이데 경향성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 간의 상관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542**

\*\* $p < .01$

예상대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과 자기에성 성격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상관계수가  $r = .542(p < .01)$ 로 자기에성 성향이 두드러질수록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에성 성향이 높으면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 소재에 의존해 자존감을 조절하며, 타인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한다(Begart, Benotsch, & Pavlovic, 2004). 또한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강한 시기와 분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는데(Morf & Rohdewalt, 1993) 이때 시기하던 대상의 불행은 그들 내부의 근원적 결핍과 욕구를 충족시켜 유쾌한 정서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시기하던 대상에 대한 수동적 형태의 공격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여길 수 있을 것이다.

### 샤덴프로이테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

연구 1에서는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테의 정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유의미한 연령차가 발견되었다. 고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중학생이 강한 정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테를 경험하였는데, 샤덴프로이테의 근거 및 개념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정서-인지-행동의 범주화 결과에서 정서와 인지에 대한 비중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유추해볼 수 있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 개인이 사용하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정서 대 인지의 비중을 검증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활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는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극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이나 개인과 환경 간의 갈등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책략 등이 포함된 적극적 대처방식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거나 회피를 통해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책략 및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는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윤지연, 2009). 이를 근거로 샤덴프로이테가 높은 사람일수록 적극적 대처방식보다는 정서적 책략 위주의 소극적 대처방식을 선호하리라 예상해 볼 수 있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샤덴프로이테와 각각의 대처방식에 대한 비교를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10과 같다.

표 3-10.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샤덴프로이테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

	중학생(n=244) 평균(표준편차)	고등학생(n=159) 평균(표준편차)	df	<i>t</i>
샤덴프로이테	2.61(.89)	2.53(.85)	401	.971
적극적 대처	2.71(.60)	2.77(.59)	401	-1.03
소극적 대처	3.20(.55)	3.18(.61)	401	.296

연구 1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이번 연구 2-3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샤덴프로이트 평균 점수와 각각의 대처방식 간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 1 이외에도 7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령과 샤덴프로이트의 부적상관을 밝힌 Steinbeis와 Singer(2013)의 연구와도 상이한 결과로서 연구의 방법론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을 연구자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석한 본 연구 1 및 보상-처벌 과제 수행에 참여한 아동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해석한 Steinbeis와 Singer(2013)의 연구 모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척도를 활용한 객관적 측정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샤덴프로이트와 대처방식 간의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3-11과 같다.

표 3-11. 샤덴프로이트 경향성 척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간의 상관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	
샤덴프로이트 경향성 척도	.022		.304**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 대처	소망적 사고
	-.038	.072	.223**	.298**

\*\* $p < .01$

예상한대로 샤덴프로이트 경향성은 정서 위주의 소극적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는  $r = .304(p < .01)$ 로 샤덴프로이트 경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 시 정



서적 방략을 채택하여 대처하며, 이는 곧 개인의 정서적인 측면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 한다” 및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와 같은 정서완화 대처와 상관값  $r=.223(p<.01)$ 의 정적상관을,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 한다” 및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다”와 같은 소망적 사고와 상관값  $r=.298(p<.01)$ 의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샤네프로이데 경향성과 적극적 대처방식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및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히 분석해 본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을 포함하는 문제중심 대처와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적 관계의 방향성을 띄고 있다는 점 또한 드러나 샤네프로이데가 인지보다 정서적 반응을 더욱 더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샤네프로이데와 공감과의 상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통해 느끼는 쾌감을 뜻하는 샤네프로이데의 정의에 반하여 보았을 때, 샤네프로이데 경향성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및 내적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Rogers, 1975)하는 공감(empathy)과 부적 상관을 보이리라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박성희(1997)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검사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단일 요인으로서의 공감 능력 측정이 가능함은 물론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에서 살펴본 샤네프로이데와 관련된 정서대 인지의 활용에 대한 주제의 검증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였다. 다음 표 3-12는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공감능력 검사 척도간의 상관표이다.

표 3-12.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공감능력 검사 척도 간의 상관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전체 공감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097		-.177**		-.092
	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	
	-.104*	.207**	-.152**	-.184**	

\* $p < .05$ , \*\* $p < .01$

샤넨프로이데 경향성은 전체 공감 능력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미미한 부적 경향성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공감과만 유의미한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의 상관계수는  $r = -.177(p < .01)$ 로 다소 약한 관계이기는 하나 샤넨프로이데가 높을수록 정서적 공감을 덜 보일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다시 한 번 샤넨프로이데와 그 근간에 기저한 정서적 대응간의 연관성을 증명하였다. 정서적 공감이란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다”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공감적 정서가 각성되는 경향을 뜻하는 공감적 각성,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는 때가 자주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역문항)”와 같이 타인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인 공감적 관심 두 가지 세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공감적 각성과는  $r = -.152(p < .01)$ , 공감적 관심과는  $r = -.184(p < .01)$ 로 나타났다. 즉, 샤넨프로이데 경향성이 높다고 공감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며, 타인의 입장 또는 관점을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는 인지적 공감은 가능하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게 될 기쁨 또는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샤넴프로이데 경향성이 네 가지 세부 하위요인 중 인지적 공감에 해당하는 상상하기(허구적인 상황 속에서 느낌을 상상해보는 경향)와만 정적상관( $r=.207(p<.01)$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껴진다” 및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등과 같은 해당 문항 내용으로 미루어봐 자기과시적이며 타인의 관심과 지지의 중심이 되길 원하는 자기애와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를 위해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와 공감능력 검사 척도 간의 상관을 추가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3-13과 같다.

표 3-13.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와 공감능력 검사 척도 간의 상관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전체 공감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169**		-.074		.014
	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	
	-.032	.254**	-.053	-.104*	

\* $p<.05$ , \*\* $p<.01$

위의 표 3-13에서 드러나듯이 자기애성 성격과 공감 능력 간의 상관은 샤넴프로이데 경향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지적 공감 요인의 세부 하위요인인 상상하기만은 샤넴프로이데 경향성과 동일하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성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을 살펴본 손예리(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자기애성 청소년들은 공감 능력 중 상상하기 요인에 있어서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기애 성향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상이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공감보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면의 상상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이 상대적으로 자기애와 관련 높은 샤넴프로이데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미루어 볼 수 있다.

## 샤네프로이데와 자존감 및 삶의 질 간의 상관

마지막으로 적응적 측면에서의 샤네프로이데를 살펴보기 위해 샤네프로이데와 자존감 및 삶의 질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14와 같다.

표 3-14.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자존감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 간의 상관

	자존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
샤네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172**	-.216**

\*\* $p < .01$

샤네프로이데 경향성은 자존감( $r = -.172(p < .01)$ ) 및 주관적 안녕감( $r = -.216(p < .01)$ )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샤네프로이데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샤네프로이데 경향성이 높아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감으로 통용되는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는 것인지, 낮은 삶의 질로 인해 샤네프로이데 경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상관분석의 특성상 규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Van Dijk(2011)는 타인의 인정과 같은 자기지지(self-affirmation)의 기회를 얻은 피험자의 샤네프로이데가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피험자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밝히며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다. 결국 샤네프로이데란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반하는 적응적이지 못한 특성인 것으로 여겨지는 바, 가벼운 표면적 쾌감(freude) 아래에 진정한 불행(schaden)이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IV.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샤덴프로이데(타인의 불행을 통해 느끼는 유쾌한 정서)에 관한 연구로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청소년의 정서 경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는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를 개발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해 샤덴프로이데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기질적 샤덴프로이데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의 제작과 함께 제작된 척도의 타당도와 개인차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 1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비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러움은 상대방에 대한 선망에 가까운 단순한 부러움 및 상대방에 대한 악의와 열등감을 내포하는 시기(envy)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적 의미로 샤덴프로이데의 발현 맥락 상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제작하여 시행하였는데, 타인에게 부러움 및 시기를 느껴본 경험에 대해 각각의 대상, 영역, 원인, 및 정서의 강도를 기술하게 한 후, 그 대상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상황을 상상하게 하여 피험자의 솔직한 반응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샤덴프로이데에 대한 간단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 후,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물어 이를 추후 척도의 문항생성원(item generator)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마련된 근거에 맞추어 해석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선망 또는 시기와 같은 부러움을 경험한 반면, 샤덴프로이데의

경험에 있어서는 그보다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주로 대상과 관련하여 친구에게, 영역과 관련하여 성적에서, 원인과 관련하여 부정적 정서로 인해 강한 강도의 샤덴프로이데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샤덴프로이데에 대한 자유로운 주관식 답안을 정서-인지-행동의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해 정리한 결과, 샤덴프로이데의 개념을 정서보다 인지로 연관 지은 고등학생의 샤덴프로이데 정도가 정서를 주로 하여 연관 지은 중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정서 대 인지 접근 양상의 차이가 샤덴프로이데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Plutchik(1980)는 기쁨, 분노, 두려움 등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8가지 기본 정서와 죄책감, 환희와 같이 이 기본정서에 인지적 작용이 개입한 연합 정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한다면 시기 및 샤덴프로이데는 부정적인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타인의 상황을 자신과 비교 및 평가해보는 인지적 측면이 포함된 연합정서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을 주로 기능할 때 더 큰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하였듯이 청소년 정서 경험의 특징 및 시기 또는 샤덴프로이데와 같은 타인관련 유발정서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2-1에서는 연구 1에서 얻은 문항생성원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18개의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이 중 개인의 기질적 샤덴프로이데 성향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9문항을 선택하였다. 여기에 Hareli와 Weiner(2002)의 연구를 근거로 샤덴프로이데 경험 대상을 ‘부러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세분화해 총 12문항의 예비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척도를 295명의 청소년들에게 시행하여 신뢰도 및 요인분석(오블리민)하여 요인값이 낮은 두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제작할 수 있었다. 기존에 행해진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에 청소년을 대상으

로 진행한 예비연구의 한계로 본 척도 문항은 다소 단순하며 일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추후 이에 대한 분석 및 보완을 통해 한층 더 체계적이며 유용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를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연구 2-2에서는 연구 2-1에서 제작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준거척도로써 다양한 종류의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는데, 학업 관련 내용의 유사한 배경의 중립적인 대상이 등장하는 시나리오 A, 연애 관련 내용의 부정적인 대상이 등장하는 시나리오 B, 진학 관련 내용의 선망의 대상이 등장하는 시나리오 C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샤덴프로이데의 발현 맥락에 맞추어 피험자가 대상에게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1차) 측정과 곧이어 대상에게 닥친 불행에 의해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하게 되는 샤덴프로이데(2차) 측정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예상대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는 각각의 시나리오 시기(1차) 및 샤덴프로이데(2차) 측정값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시기를 측정하는 시기(1차) 측정값보다는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는 샤덴프로이데(2차) 측정값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준거척도로 Smith와 동료들(1999)이 개발한 기질적 시기심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를 활용하였다. 시기란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역에서 자신과 유사한 배경의 대상이 이점을 얻었을 때 상향비교를 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정서로 샤덴프로이데와 상호간 많은 관련을 지닌 개념이며, 예상한 바와 같이 샤덴프로이데 경향성과 뚜렷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준거척도로써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IDR-7)를 활용하였다.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이 사회적 통념상 겉으로 드러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성향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피험자의 경우, 그들의 실제 경향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샤덴프로이데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역시나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며 가설을 지지함으로써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가 내용 및 구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타당한 척도

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 2-3에서는 제작된 척도를 실제 활용하여 개인차 및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이 지닌 함의에 대해 알아보는 동시에 본 척도의 유용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 청소년들이 작성한 샤덴프로이데의 특성과 관련하여 범주화한 목록 중 샤덴프로이데와 자기에 간의 개념적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해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NPDS)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쉽사리 남을 시기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과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자기에성 성격을 지닌 경우, 시기하던 대상의 불행을 통한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1에서 도출된 정서 대 인지의 접근 양식에 따른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은 정서완화 대처 및 소망적사고 대처로 이루어진 소극적 대처방식과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이 높을수록 인지적인 대응보다는 정서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함을 증명하며 연구 1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 밖에 샤덴프로이데 경향성과 공감 능력 간의 상관도 살펴보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샤덴프로이데와 전체 공감 능력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심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공감과만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다시 한 번 샤덴프로이데와 정서의 연관성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샤덴프로이데가 높다고 공감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며 상대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공감은 가능하나 그로 인한 상대방의 기쁨 또는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능력만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는 자존감 및 주관적 삶의 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적이지 못한 특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대



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해 오늘날 세계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샤덴프로이데에 한국 최초의 학술적 접근을 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새로운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청소년들의 정서 체험 및 특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층 더 풍부한 청소년 정서 이해에 이바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훨씬 더 간편한 방법으로 단 시간 동안 다수에게 측정 가능한 도구인 최초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기애, 대처방식, 공감 등 샤덴프로이데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을 새롭게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인 정서로서의 샤덴프로이데를 개인차를 내포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고유한 성격 특성으로 함께 담아보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성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정된 청소년들에게만 시행한 결과는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도 실시하여 보편성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또는 비디오 및 인터뷰 감상 등을 통해 실제 정서를 유발한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 척도를 사용하였을 경우, 훨씬 더 용이하며 경제적으로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할 수 있지만 진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나아가 본 척도를 활용하여 샤덴프로이데와 성격, 기타 성격장애 및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과의 상관을 밝히고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적응 및 교우 관계에 적용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아울러 연구 초반에 밝혔듯이 집단주의 문화(collectivistic culture)인 한국과 개인주의 문화(individualistic culture)인 서양 사회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에 어떠한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본다면 확장된 연구 영역을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인간 내면의 탐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를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미정(2013). 시기심과 우울의 관계. 낙관성에 의해 중재된 후회의 매개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환(2002) **성격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손예리·고은경·황순택(2010). 중학생 자기애 성향의 하위유형에 따른 기질과 공감 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91-404.
- 윤지연(200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방식과 사이버섹스 중독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운아(2009). 부러움: 한국의 “무해한” 선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71-189.
- 차운아(2010). 부러움: 연합과 접근의 동기를 알리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51-72.
- 채려분(2013). 사회관계형 SNS이용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유발에 관한 연구: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Ze'ev, A. (1992). Envy and inequality. *The Journal of Philosophy*, 89(11), 551-581.
- Ben-Ze'ev, A. (2000). *The subtlety of emotions*. Cambridge: MIT Press.
- Blanton, H., Buunk, B. P., Gibbons, F. X., & Kuyper, H. (1999). When better-than-others compares upward: The independent effects of comparison choice and comparative evaluation on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420-430.
- Bogart, L. M., Benotsch, E. G., & Pavlovic, J. D. (2004). Feeling superior but no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35-44.

- Brigham, N. L., Kelso, K. A., Jackson, M. A., & Smith, R. H. (1997). The roles of individious comparisons and deservingness in sympathy and schadenfreud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3), 363–380.
- Buunk, A. P., & Gibbons, F. X. (2007). Social comparison: The end of a theory and the emergence of a Wel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2, 3–21.
- Buunk, B. P., Collins, R. L., Taylor, S. E., VanYperen, N. W., & Dakof, G. A. (1990).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Either direcion has its ups and dow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38–1249.
- Cohen–Charash, Y., & Mueller, J. S. (2007). Does perceived unfairness exacerbate or mitigate interpersonal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s related to env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3), 666–680.
- Collins, R. L. (1996). For better of worse: The impa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elf-evalu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51–69.
- Coppens, F. (2008). Emotions elicited by the (mis)fortunes of others: Spotlighting Schadenfre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ilburg University, Tilburg.
- Cooper, C. & Lexington, K. (2013). Change in envy as a function of target lik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 Crowne, D. P., & Ma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454.
- Ekman, P. (1993).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8, 384–392.

- Feather, N. T. (1989). Attitudes towards the high achiever: The fall of the tall popp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1, 239-267.
- Feather, N. T. (1992). An attributional and value analysis of deservingness in success and failure sit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125-145.
- Feather, N. T. (1994). Attitudes toward high achievers and reactions to their fall: Theory and research concerning tall popp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1-73.
- Feather, N. T., & Sherman, R. (2002). Envy, resentment, schadenfreude, and sympathy: Reactions to deserved and undeserved achievement and subsequent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7), 953-96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ijda, N. H. (1988). The law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3, 348-358.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Greitemeyer, T., & Osswald, S. (2010). Playing prosocial video games increases empathy and decreases schadenfreude. *Emotion*, 10(6), 796-802.
- Gulas, C. S. & McKeage, K. (2000). Extending social comparison: An examination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idealized advertising imagery. *Journal of Advertising*, 29(2), 17-28.
- Hareli, S., & Weiner, B. (2002). Dislike and envy as antecedents of pleasure at another's misfortune. *Motivation and Emotion*, 26(4), 257-276.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Graw-Hill.
- Leach, C. W., Spears, R., Branscombe, N. R., & Doosje, B. (2003). Malicious pleasure: Schadenfreude at the suffering of anoth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932-943.
- McNamee, M. J. (2003). Schadenfreude in sport: Envy, justic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30(1), 1-16.
- McNamee, M. J. (2007). Nursing schadenfreude: The culpability of emotional construction.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10, 289-299.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347-413.
- Morf, C. C., & Rohdewalt, F. (2001). Expanding the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of narcissism: Research directions for the future. *Psychological Inquiry*, 12(4), 243-251.
- Muise, A., Christofides, E., & Desmarais, S. (2009). More information than you ever wanted: Does Facebook bring out the green-eyed monster of jealousy?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4), 441-444.
- Nagel, E. (2010). The significance of gender, context, and contingent self-esteem on feelings of schadenfreude. (Unpublished honors psychology thesis).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 Plutchic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rper & Row.

- Reis, T. J., Gerrard, M., & Gibbons, F. X. (1993). Social comparison and the pil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comparison of contracept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1), 13-20.
- Rogers, C. F. (1975). Empathy: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elling Psychologist*, 5, 2-10.
- Salovey, P., & Rodin, J. (1984).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ocial-comparison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80-792.
- Shamay-Tsoory, S. G., Tibi-Elhanany, Y., & Aharon-Peretz, J. (2007). The green-eyed monster and malicious joy: The neuroanatomical bases of envy and gloating (schadenfreude). *Brain*, 130, 1663-1678.
- Shamay-Tsoory, S. G., Fischer, M., Dvash, J., Harari, H., Perach-Bloom, N., & Levkovitz, Y. (2009). Intranasal administration of oxytocin increases envy and schadenfreude (gloating). *Biol Psychiatry*, 66, 864-870.
- Smith, R. H., Turner, T. J., Garoznik, R., Leach, C. W., Ursch-Druskat, V., & Weston, C. M. (1996). Envy & schadenfreu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58-168.
- Smith, R. H., Parrot, W. G., Diener, E. F., Hoyle, R. H., & Kim, S. H. (1999). Dispositional env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007-1020.
- Smith, R. H., & Kim, S. H. (2007). Comprehending envy. *Psychological Bulletin*, 133(1), 46-64.
- Smith, R. H. (2013). The joy of pain: Schadenfreude and the dark side of human na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einbeis, N., & Singer, T. (2013).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n social emotions and behavior during childhood: The ontogeny of envy and Schadenfreude predicts developmental changes in equity-related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5*, 198–209.
- Sundie, J. M., Ward, J. C., Beal, D. J., Chin, W. W., & Geiger-Oneto, S. (2009). Schadenfreude as a consumption-related emotion: Feeling happiness about the downfall of another's product.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9*, 356–373.
- Takahashi, H., Kato, M., Matsuura, M., Mobbs, D., Suhara, T., & Okudo, Y. (2009). When your gain is my pain and your pain is my gain: Neural correlates of envy and schadenfreude. *Science, 323*(5916), 937–939.
- Tess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1, pp. 181–227). New York: Academic Press.
- Testa, M., & Major, B. (1990).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s after failure: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2), 205–218.
- Van Dijk, W. W., Ouwerkerk, J. W., Goslinga, S., & Nieweg, M. (2005). Deservingness and schadenfreude. *Cognition and Emotion, 19*, 933–939.
- Van Dijk, W. W., Ouwerkerk, J. W., Goslinga, S., Nieweg, M., & Gallucci, M. (2006). When people fall from grace: Reconsidering the role of envy in schadenfreude. *Emotion, 6*(1), 156–160.

- Van Dijk, W. W., Goslinga, S., & Ouwerkerk, J. W. (2008). Impact of responsibility for a misfortune on schadenfreude and sympathy: Further evide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8*(5), 631–636.
- Van Dijk, W. W., Van Koningsbruggen, G. M., Ouwerkerk, J. W., & Wesseling, Y. M. (2011). Self-esteem, self-affirmation, and schadenfreude. *Emotion, 11*(6), 1445–1449.
- Van Dijk, W. W., Ouwerkerk, J. W., van Koningsbruggen, G. M., & Wesseling, Y. M. (2012). "So you wanna be a pop star?": Schadenfreude following another's misfortune on TV.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168–174.
- Zhang, W. (2009). The role of envy and competitor perception in experiencing schadenfre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부 록

## 부록 목차

I.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개방형 질문지-----	60
II.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최초 문항 -----	61
III.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62
IV.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A -----	63
V.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B -----	65
VI.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C -----	67
VII. 기질적 시기심 척도 -----	69
VIII.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	70
IX.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	72
X.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	74
XI. 공감능력 검사 척도-----	76
XII. 자존감 척도-----	78
XIII. 주관적 안녕감 척도 -----	79
XIV. 연구 2-3의 전체 상관표 -----	80

## 부록 I. 청소년의 부러움 및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개방형 질문지

※ 다음을 읽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답해주세요. 시험이 아니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1. 당신은 누군가에게 부러움이나 시샘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

2. 부러움이나 시샘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본 후 <보기>와 같이 빈 칸을 완성하세요.

	누구에게 느꼈나요 ?	무엇에 느꼈나요 ?	왜 느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b>&lt;보기&gt;</b>	고등학교 다니는 사촌언니	언니의 성적 (전교1등)	엄마가 언니랑 나를 비교했다.	엄마가 밉고 내 자신이 못나보였고 내가 언니였음 좋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반 친구	친구의 새 핸드폰	그 친구가 내가 갖고 싶은 최신 휴대폰을 샀다고 자랑했다.	나도 그 핸드폰이 갖고 싶어서 속상했고 친구가 알미웠다.

---

3. 위의 경험에서 당신이 부러워했던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면, 언니의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거나 친구가 새로 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

4.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기며 즐거워하는 감정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왜, 이러한 ‘샤덴프로이데’를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정의해보세요!!**>>

## 부록 II.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최초 문항

	범 주	문 항 내 용
1	개념 정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이 좋다.
2	본능	다른 이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3	정서적 쾌감	남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을 느낀다.
4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5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면 괜스레 안도가 된다.
6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씹통이라 느낀다.
7	당위성	잘 나가다 망한 사람들에게는 알고 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8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면 인과응보란 말이 떠오른다.
9	경쟁 이득 및	다른 이의 실패는 곧 나의 성공이다.
10	적응적 기제	다른 이의 불행을 교훈 삼아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11	타자화	내가 아닌 남에게 닥친 불행에 슬퍼할 이유는 없다.
12	보복 수단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면 마치 복수를 한 것처럼 고소하다고 느낄 것이다.
13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웃음이 날 것이다.
14	인지적 해석 (상향 비교의 하향평준화)	나보다 우월했던 사람이 좋지 않은 일로 인해 나와 같은 위치가 된다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15		나보다 우월했던 사람이 좋지 않은 일로 인해 나와 같은 위치가 된다는 것은 평등을 의미한다.
16	자기애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남도 가져서는 안 된다.
17		다른 이가 나보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한다.
18		나보다 잘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이다.

### 부록 III. 샤덴프로이테 경향성 척도

※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기며 즐거워하는 감정을 ‘샤덴프로이테 (schadenfreude)’라고 부릅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어느 정도 이상의 ‘샤덴프로이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샤덴프로이테의 개인차를 알아보는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이 좋다.	1	2	3	4	5
2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을 느낀다.	1	2	3	4	5
3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4	다른 이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1	2	3	4	5
5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이 잘 못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괜스레 안도가 된다.	1	2	3	4	5
6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7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을 느낀다.	1	2	3	4	5
8	평소 싫어하던 사람이 잘 못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괜스레 안도가 된다.	1	2	3	4	5
9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소하다고 느낄 것이다.	1	2	3	4	5
10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웃음이 날 것이다.	1	2	3	4	5

#### 부록 IV.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A

※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상상하며 잘 읽어 보세요. (A의 성별은 당신과 같습니다.)

당신과 A는 같은 반 친구입니다. A와 당신은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둘의 성적이 비슷해 주변에서는 A와 당신을 종종 비교하곤 합니다. 2학기 1차 지필평가가 다가와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험에서 등수가 오르면 부모님께서 당신이 너무나 갖고 싶어 하던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시기로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심 라이벌인 A가 신경 쓰인 당신은 A가 수업 받는 모습을 관찰하였지만 A는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조는 등 당신보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만큼 잘 본 것 같지는 않아 걱정되었습니다. 가채점 결과, 당신의 성적은 지난 1학기 성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떨어진 것도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꿈에 그리던 최신 스마트폰도 멀리 사라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A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크게 외칩니다. “오예~ 이번 시험 완전 잘 봤다~!!!”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A에게 샘이 난다.	1	2	3	4	5
2	A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1	2	3	4	5
3	내가 A보다 못 난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4	A에게 생긴 일 때문에 기분이 좋다.	1	2	3	4	5
5	A에게 생긴 일을 만족할 수 없다.	1	2	3	4	5

일주일 뒤,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이번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모두들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전체 등수를 교실에 붙여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울상을 지으며 선생님께 하소연 하였으나, 단 한 명, A만이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항의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교실 벽에 학급 등수를 붙이시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시자, 다들 우르르 벽 앞으로 몰려가 등수를 확인합니다. 당신도 재빨리 무리에 끼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을 찾아봅니다. 1학기 성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등수를 확인하고 나니 갑자기 일주일 내내 시험을 잘 봤다며 자랑하던 A의 등수가 궁금해집니다. A의 이름을 찾아봅니다. 이럴 수가! 자신만만하던 A의 등수는 당신의 등수보다도 훨씬 아래입니다. 알고 보니 A는 가채점을 잘 못 했던 모양입니다.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A에게 생긴 일이 썸통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A에게 생긴 일이 유쾌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3	A에게 생긴 일이 만족스럽다.	1	2	3	4	5
4	A에게 생긴 일이 안타깝다.	1	2	3	4	5
5	A에게 생긴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1	2	3	4	5

## 부록 V. 샤네프로이데 시나리오 B

※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상상하며 잘 읽어 보세요. (B의 성별은 당신과 같습니다.)

당신과 B는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당신과 B의 어머니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라 어렸을 때부터 가끔씩 만나 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닙니다. B는 어른들이 안 보일 때면 당신을 놀리고 괴롭혔으니까요. 이제 청소년이 된 B와 당신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서로 아는 척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진 않습니다. 당신이 인사를 건네자 B는 쌀쌀맞은 얼굴로 “너 나 아냐?”라고 말하였고, 불량학생들로 유명한 B의 친구들 또한 당신을 보며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B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B가 대형 기획사에 캐스팅 되어 곧 아이돌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B의 모습이 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B는 모두가 알아주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B에게 샘이 난다.	1	2	3	4	5
2	B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1	2	3	4	5
3	내가 B보다 못 난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4	B에게 생긴 일 때문에 기분이 좋다.	1	2	3	4	5
5	B에게 생긴 일을 만족할 수 없다.	1	2	3	4	5



그렇게 B는 아이돌로 데뷔하게 되었고, 어딜 가든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B의 인기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B는 활동 중 욕설, 음주, 흡연, 스케줄 핑크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며 곧 소리 소문 없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는 소속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으며, B가 한 때 잠시나마 잘 나가던 아이돌이었다는 사실 또한 잊혀져버렸습니다. 이제 B는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B에게 생긴 일이 썸통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B에게 생긴 일이 유쾌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3	B에게 생긴 일이 만족스럽다.	1	2	3	4	5
4	B에게 생긴 일이 안타깝다.	1	2	3	4	5
5	B에게 생긴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1	2	3	4	5

## 부록 VI.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C

※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상상하며 잘 읽어 보세요. (C의 성별은 당신과 같습니다.)

당신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에는 다른 학교의 학생인 C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당신과 C는 곧 아는 사이가 됩니다. 사실 C는 이 근방에서 유명한 아이인데, 전교 1등 일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외모도 훌륭해 인기도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짝사랑하던 상대는 C에게 고백했다 차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일 밤 학원이 끝나면 어머니가 고급 외제차를 끌고 데리러 오는 등 사람들은 그런 C를 “엄친아/엄친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C가 다시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외국의 유명 명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는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꿈에 그리는 학교이며, 그 학교의 졸업장은 곧 성공을 의미합니다. C는 그야말로 완벽한 아이인 것만 같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C에게 샘이 난다.	1	2	3	4	5
2	C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1	2	3	4	5
3	내가 C보다 못 난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4	C에게 생긴 일 때문에 기분이 좋다.	1	2	3	4	5
5	C에게 생긴 일을 만족할 수 없다.	1	2	3	4	5

그러나 C는 외국으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C의 입학이 부정입학인 것이 탄로나 입학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망신을 당한 C는 곧 학원도 그만 두게 되었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컴퓨터 게임을 하다 게임중독이 되어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외모도 망가져, 눈에 띄던 예전과는 다른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C에게 생긴 일이 썸통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C에게 생긴 일이 유쾌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3	C에게 생긴 일이 만족스럽다.	1	2	3	4	5
4	C에게 생긴 일이 안타깝다.	1	2	3	4	5
5	C에게 생긴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1	2	3	4	5

## 부록 VII. 기질적 시기심 척도

※ 다음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자주 시기심을 느낀다.	1	2	3	4	5
2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못났다고) 느낀다.	1	2	3	4	5
3	남을 시기하는 (샘내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1	2	3	4	5
4	너무 쉽게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5	아무리 노력해도 시기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1	2	3	4	5
6	나는 내 자신이 무능하다는 느낌 때문에 고민스럽다.	1	2	3	4	5
7	다른 누군가가 많은 재능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쩐지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8	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들의 성공은 나를 화나게 한다.	1	2	3	4	5

## 부록 VIII.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 다음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첫인상은 대체로 맞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3	나는 왜 내가 어떤 것들(일, 물건 등)을 좋아하는지 항상 알고 있다.	1	2	3	4	5
4	내가 한 번 결심을 하면, 다른 사람은 나의 의견을 좀처럼 바꿀 수 없다.	1	2	3	4	5
5	나는 전적으로 나의 운명을 통제(컨트롤)한다.	1	2	3	4	5
6	나의 결정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1	2	3	4	5
7	나는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8	나는 완벽하게 이상적인(바람직한) 사람이다.	1	2	3	4	5
9	나의 판단력(사리분별 능력)에 매우 자신 있다.	1	2	3	4	5
10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다.	1	2	3	4	5
11	나는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한 적이 있다.	1	2	3	4	5
13	내가 당한 것을 용서하거나 잊어버리기 보다는 앙갚음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4	나는 들키지 않을 상황이라 해도 항상 법을 준수한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받을 거스름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는데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	1	2	3	4	5

16	나는 피병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다.	1	2	3	4	5
17	나는 살면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1	2	3	4	5
18	나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1	2	3	4	5
19	나는 야한 책이나 잡지, 동영상을 결코 접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나는 내 것이 아닌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다.	1	2	3	4	5

## 부록 IX.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

※ 다음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전 적 으 로 그 렇 다
1	나는 남들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2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좋다가 때로는 너무나 미워지는 등 감정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6	7
3	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하찮게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4	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5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1	2	3	4	5	6	7
6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거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1	2	3	4	5	6	7
7	나에게 정당한 대접을 해주지 않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6	7
8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1	2	3	4	5	6	7
9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6	7
10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6	7

11	마음만 먹으면 나에 대해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1	2	3	4	5	6	7
12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종종 있다.	1	2	3	4	5	6	7
13	최고의 성공, 막강한 권력, 최고의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 누구보다 유명해지는 것 중 한 가지(혹은 여러 가지)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1	2	3	4	5	6	7
14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1	2	3	4	5	6	7
15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16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7
17	내가 해낸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	1	2	3	4	5	6	7
18	어떤 일에 대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 부록 X.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 모든 이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최근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을 망쳤거나,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부모님께 혼났거나, 친구와 싸운 경험 등)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평소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의 각 해당 내용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1	2	3	4	5
2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일이 더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3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갖는다.	1	2	3	4	5
4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1	2	3	4	5
5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6	존경하는 분이나 친구, 선배 등에게 조언을 구한다.	1	2	3	4	5
7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8	그 일을 무시해버리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9	그 일(스트레스를 받은 일)을 통해 무엇인가 다른 창조적인 일을 해볼 수 있게 한다.	1	2	3	4	5
10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1	2	3	4	5

11	(때로는 운이 나쁠 수도 있다며) 운으로 돌린다.	1	2	3	4	5
12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1	2	3	4	5
13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일어난 일(또는 상황)이나 나의 느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1	2	3	4	5
15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누군가에게 말한다.	1	2	3	4	5
16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1	2	3	4	5
17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1	2	3	4	5
18	다음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전념한다.	1	2	3	4	5
19	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	1	2	3	4	5
21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1	2	3	4	5
22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1	2	3	4	5
23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1	2	3	4	5

## 부록 XI. 공감능력 검사 척도

※ 다음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해당란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내린 해결책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	1	2	3	4	5
2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5
3	어떤 사람이 바로 앞에서 나를 비난하면 나는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의견을 상대방에 맞춘다.	1	2	3	4	5
5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했던 행동을 후회한다.	1	2	3	4	5
6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5
7	친구들에 비해 나는 모든 것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친구들과 노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한다.	1	2	3	4	5
9	나는 제 때에 빨리 결심을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 다.	1	2	3	4	5
10	나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나는 남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겪은 실패를 극복하는데 여러 날이 걸린다.	1	2	3	4	5

13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1	2	3	4	5
14	내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나는 전전긍긍(고민)하게 된다.	1	2	3	4	5
15	사람들이 때로 나를 칭찬해 주지만, 실제로 나는 그 칭찬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	1	2	3	4	5
16	나는 내 자신이 친구 혹은 다른 친구들과 너무 다르다고 느낀다.	1	2	3	4	5
17	나는 내 자신이 친구들과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혹은 내 생각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까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을 지키거나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18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을 상한다.	1	2	3	4	5
19	나의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면, 나는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1	2	3	4	5
2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22	나는 여러 사람이나 선생님 앞에서 지나치게 수줍어한다.	1	2	3	4	5
23	교실이나 모임에서 다른 친구들이 내 의견(혹은 나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24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1	2	3	4	5
25	나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말한 친구를 만나게 되어도 가능한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노력한다.	1	2	3	4	5

## 부록 XII. 자존감 척도

※ 다음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해당란에 V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 부록 XIII. 주관적 안녕감 척도

※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왔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느낌이라 여겨지는 가장 알맞은 위치에 (보기)와 같이 V표시 해주십시오.

(보기) 만일 당신의 삶이 아주 기뻐다면 기쁜    \✓ - 2 - 3 - 4 - 5 - 6 - 7    슬픈		
당신의 삶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면 기쁜    1 - 2 - 3 - 4✓ - 5 - 6 - 7    슬픈		
당신의 삶이 아주 슬펐다면 기쁜    1 - 2 - 3 - 4 - 5 - 6 - 7✓ 슬픈		

1.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재미있는	1 - 2 - 3 - 4 - 5 - 6 - 7	지루한
즐거운	1 - 2 - 3 - 4 - 5 - 6 - 7	괴로운
귀중한	1 - 2 - 3 - 4 - 5 - 6 - 7	쓸모없는
사교적인	1 - 2 - 3 - 4 - 5 - 6 - 7	외로운
알찬	1 - 2 - 3 - 4 - 5 - 6 - 7	텅빈
희망찬	1 - 2 - 3 - 4 - 5 - 6 - 7	비관적인
보람 있는	1 - 2 - 3 - 4 - 5 - 6 - 7	실망스러운
행운이 따르는	1 - 2 - 3 - 4 - 5 - 6 - 7	운이 없는

2.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부록 XIV. 연구 2-3의 전체 상관표

	샤네프 로이데 경향성	자기애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자존감	주관적 안녕감
샤네프 로이데 경향성	1	.542**	.022	.304**	.097	-.177**	-.172**	-.216**
자기애	.542**	1	.161**	.410**	.169**	-.074	-.078	-.183**
적극적 대처	.022	.161**	1	.367**	.258*	.233**	.223**	.205**
소극적 대처	.304**	.410**	.367**	1	.296**	.081	.064	-.015
인지적 공감	.097	.169**	.258**	.296**	1	.480**	.075	.007
정서적 공감	-.177**	-.074	.233**	.081	.480**	1	-.046	.023
자존감	-.172**	-.078	.223**	.064	.075	-.046	1	.556**
주관적 안녕감	-.216**	-.183**	.205**	-.015	.007	.023	.556**	1

\*\* $p < .01$

## **Abstract**

# **"Shameful Joy":**

## **A Study on the Schadenfreude among Korean Adolescents**

Lee, Neah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adenfreude, a German word meaning pleasure derived from the misfortunes of others, has lately drawn an increased amount of attention such as envy when a person makes upward comparisons in everyday social interactions. Due to habitual upward comparisons in the secondary schools in Korea, Korean adolescents who usually undergo the most volatile emotional period in life's cycle are located in a highly competitive daily ambience. Thus, a study related to this aspect based on schadenfreude can bring forth a valuable insight in understanding emotional status quo of Korean adolescents bett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ny research on schadenfreude in Korea. Hen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om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dolescents' affective experience, focusing on envy and schadenfreude.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study from 461 adolescent students to collect the necessary first-hand research materials which in turn became basis of developing an investigating tool for detecting a propensity of schadenfreude. This newly developed measuring method called the Schadenfreude Tendency Scale(STS) served as a device for examining a person's schadenfreude tendency as a constant and consistent trait.

Study 1 in this thesis features an exploratory research on envy and schadenfreude of the Korean adolescents in four multiple dimensions—target, domain, cause, the level of the feeling. To assess the experience of envy, a set of structured open questionnaires accordingly described were provided. The subjects were given a situation that the envied target suffers a misfortune, then, the questionnaire asked how they feel to find out about their experience of schadenfreude. They also demonstrated their own ideas of the concept after reading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schadenfreude, that prompted to the later use as the item generators for the scale. The findings suggest that most teenagers experienced the feeling of (benign or malicious) envy whereas only a limited number of subjects experienced the feeling of schadenfreude, indicating that schadenfreude is a unique characteristics that bears individual difference. The most experienced schadenfreude by subjects were respectively; their friends(target), their grades(domain), negative feelings toward an envied target(cause). As for categorizing the subjects' own concepts of schadenfreude into emotion-cognition-behavior, the highschool students with more of cognition tend to show significantly less schadenfreude than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more of emotion which might imply an interconnectedness between schadenfreude and affectiveness.

In study 2-1, the Schadenfreude Tendency Scale(STS) was developed based on the item generators previously obtained in study 1. This single factor scale was proved to be highly reliable.

In study 2-2, the schadenfreude scenarios were made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cale, showing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TS. The STS also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ispositional Envy Scale(DES), while it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BIDR) that measures social desirability. These results all verified a hypothesis that the STS is a statistically valid method for measuring schadenfreude.

Study 2-3 included some applications of STS in correlations between schadenfreude and various variables such as narcissism, coping strategies, empathic ability, and subject well-be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one's tendency for schadenfreud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arcissism as well as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y,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ympathy(emotional empathy) as well as subject well-being. That is, a narcissistic person with more of affectiveness is more likely to experience schadenfreude, and a person with higher schadenfreude tendency is more likely to have a difficulty in feeling sympathy for others. Hence,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schadenfreude might be maladaptive personality traits.

The researcher hopes for more study on schadenfreude area in the future and an advancement of STS technique which proved its own usefulness in the whole process of this study.

**keywords: schadenfreude, envy, upward comparison, narcissism,  
Schadernfreude Tendency Scale (STS)**

***Student Number: 2008-20157***